

젠더 정체성의 정치학과 ‘근대/여성’ 담론의 기원

- 『여자계』지를 중심으로

소영현*

차 례

1. 머리말
2. 『여자계』와 여성의 정체 구성
 - 2.1. ‘용어의 각축장’의 의미
 - 2.2. 여성 내부의 차이 : 각성된, ‘나/우리’와 계몽의 대상인 ‘더들’
 - 2.3. 여성 외부의 차이 : 평등론과 동등론
3. 내셔널리즘과 젠더화, 우정론-결론을 대신해서

『여자계』(1917)에는 여자의 정체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들이 동원되었다. 『여자계』가 용어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은 다양한 논자들이 공히 ‘여자해방’과 ‘여자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대한 호명 주체의 입장 차이, 무엇보다 각 용어들을 호명하게 하는 남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자계』는 여성의 정체 구성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여성의 정체 구성 과정은 남녀의 관계에 대한 모순적 논의들 즉 평등론과 동등론 그리고 이것이 불러올 역설적 상황을 노출시키게 되며, 『여자계』의 여성에 관한 착종된 논의들은 이 역설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성을 둘러싸고 상충된 논의들이 배치되어 있는 『여자계』는

* 포항공과대 인문사회학부 대우전임강사

서로 매끄럽게 맞물리지 않는 두 작업 즉 ‘근대’ 여성을 규정하는 작업과 ‘여성’을 규정하는 작업이 겹치면서 생겨나는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이는 규정 불가능한 ‘여성’에 대한 논의가 이끈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여성’을 둘러싼 논의는 ‘여성’에 관한 선(先)규정을 요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작업은 남녀 이분법의 논리를 근대 여성 담론의 근저에 자리하게 하는 것이다.

핵심어 : 젠더, 정체성, 구성, 근대/여성, 담론, 해방, 교육, 평등, 차이, 동등, 우정, 내셔널리즘

1. 머리말

‘여성’을 주요독자층으로 한 근대적 인쇄 매체의 발간은 국권수호를 위한 계몽운동이 격렬했던 19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가정잡지家庭雜誌』, 『여자지남女子指南』, 『자선부인회잡지』로 대표되는 월보·회보 성격의 인쇄 매체들은 계몽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확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여성을 교육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식의 인식 전환을 요청하는 주장과 일상생활 전반의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신지식 소개 차원의 기사 등으로 구성된 이 인쇄 매체들은 국가-만들기 기획 아래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지정하고 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했다. 남녀동등론에 입각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거나 ‘현모’·‘양처’의 가치가 고평될 때, 위생적인 생활지침과 출산·육아에 관한 근대적 지식이 소개될 때, 여기서 호명되는 ‘여성’은 실질적인 명칭이나 역할의 차이와 무관하게 국가의 문명화와 부강을 가능하게 할 계몽과 교육의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이 호명방식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남녀동등론이 ‘서구’여성과의 대비 속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국가-만들기 기획에 입각할 때 남녀의 (권리의) 불균등성은 서구와의 낙차라는 참조틀을 통해 문제적인 상황이 될 수 있었다. 남녀가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만들기 기획을 위한 ‘교육대상’이라는 조건에서만 참일 수 있었으며, 남녀동등 일반론 혹은 정치·사회적 권리를 둘러싼 남녀동등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 호명된 것은 추상적 계몽성의 논리에 의한 것이다. 그로 인해 이 시기에는 남녀의 ‘차이’를 둘러싼 문제가 불균등성의 논리로 대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차이’가 불러올 갈등의 여러 국면들이 표면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

대저건곤은독성호는리치가업고음양은상비호는의무가잇슨즉남녀가비록
다를지언정교육이야엇지다르다호리오¹⁾

남즈도사름이오녀즈도사름이어늘남녀가동등치못호야남즈는녀즈를압제
호고녀즈는남즈를순술흘은무삼연고인지²⁾

『녀자지남女子指南』(1908. 5.) 창간호에 실린 「남녀동등의 희망」, 「남녀의 동등론」, 「남녀동등의무」 등의 글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것도 남녀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³⁾ 그러

1) 김운국, 「남녀동등의무」, 『녀자지남』, 1908. 5, p.25.

2) 리룡즈, 「남녀동등의희망」, 『녀자지남』, 1908. 5, p.37.

3)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러호즉녀즈도남즈와동등으로교육을힘스게호며실업을발달케호는것이세계상상국가되는일디법이오며”(청희빅용, 「남녀의동등론」, 『녀자지남』, p.20.), “우리대한편쇼호지방과슈쇼호인민으로남즈만활동호고엇지나라이부강호기를바라며녀즈를교육안이호고엇지문명호기를바라리오오직바라건디우리녀즈동포여힘쓰고힘쓸지어다티셔문명국녀즈의행동을모범호고스업을효측호여우리

나 ‘여자교육의 필요성’이라는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으면서도 그 주장의 근거들은 서로 달랐다. 여기에는 남녀가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과 차별적인 존재라는 인식 그리고 남녀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 등의 서로 다른 근거에 입각한 남녀동등론이 특별한 구분 없이 하나의 결론을 위해 동일한 층위로 호출되고 있었다.

계몽의식 본연의 추상성으로 봉합되었던 이 모순의 지점들은(『가명잡지』, 『여자지남』 등) 이후 여성의 정체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여자계』) 문제적인 지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지점이 바로 여성의 정체 구성 작업이 내장한 딜레마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 젠더 정체성의 정치학을 논의하기 위한 핵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의 딜레마는 ‘신여성’이 등장했던 근대 초기뿐만 아니라 ‘신여성’ 담론을 연구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남겨져 있다. 이 딜레마를 추상적 계몽성의 논리나 국민국가 만들기 기획으로 해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행해지는 것은 일시적인 봉합이었을 뿐이며, 심지어 여성의 정체 구성은 외부의 이데올로기적 요청에 자발적으로 부응하는 방식으로 여성 정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간 여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들, 그 가운데서도 ‘신여성’ 담론(/현상) 연구는 문학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학적, 역사학적 관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신여성’을 둘러싼 연구들은 인쇄 매체의 성격 규정에서 ‘신여성’의 함의 규정 작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졌는데,⁴⁾ 이 과정

후성녀자에선진되논도리틀극진히하야우리대한제국으로문명훈지경과부강훈쌍에달
 흥업기틀천만행심(김운곡, 『남녀동등의무』, 『녀자지남』, pp.25~26.)” 등.

4)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표현의 역사와 의의』, 민족문화사연구소, 『민족문화사 연구』, 제9호, 1996. : 홍양희, 『일제시기 조선의 ‘현모양처’ 여성관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 1997. : 권희영, 『1920~19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新女性』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4집, 한국사회사학회, 1998. : 박정애, 『1910-

에서 신여성의 대표적 인물들의 대한 (그들의 실제 삶에서 사회적 영향에 이르는)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을 독자층으로 하는 인쇄 매체의 특성과 신여성 등장의 배경·성격 등에 대한 실증적인 작업들도 꽤 진척되었다. 덧붙여 일본이나 서구의 논의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신여성’ 담론이 근대성을 해명하는 중요한 코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밝혀졌고, 이를 토대로 ‘신여성’ 담론을 근대로의 변전기에 등장하는 보편세계사적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인 시각이 열렸다.(김경일, 김수진 등)

그런데 그간의 연구들이 ‘신여성’ 담론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신여성 담론이 근대성에 대한 축적된 논의 안에서 고찰될 때, 신여성의 등장은 근대 보편적이고 식민지 특수적인 현상으로 규정되면서 신여성 담론에서 담론의 개별성에 대한 질문이 제거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신여성의 등장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이른바 신여성 등장의 ‘기원’이 은폐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간의 연구들은 대체로 실제 현실의 여성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졌으며, 특히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 등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 연구로 집중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물론 개별 인물 연구에 치우친 이러한 경향은 1910년대 말 일본에 있었던 여자유학생이 30여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진보적인 여성 인식을 갖추고 있거나 그것을 일관되게 표현해내었던 인물들이 극히 드물었다는 당대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축적과 함께 ‘근대’ 여성의

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1999. : 이상경, 『나혜석전집』, 태학사, 2000.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 문옥표, 『신여성』, 청년사, 2003.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 2005. : 유진원,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푸른사상사, 2006 등.

정체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 작업이 곧 ‘신여성’에 대한 연구로, 몇몇 인물에 대한 연구로 축소·환원되는 경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는 그간의 연구가 ‘여성’을 둘러싼 난맥상의 논의들을 ‘신여성’ 담론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압축하는 작업에 주력하면서 생겨난 불가피한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신여성에 대한 논의가 근대성의 논의 일반으로 확대되고 개별 인물들에 대한 논의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신여성’의 호명 주체와 목적 즉 ‘신여성’ 담론을 구성하고 떠받쳤던 정치·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갈등의 제국면이 휘발되어버린다는 데 있다. 재일(在日)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의 기관지 성격을 띠고 1917년 12월에 창간되었던 『여자계』에는 여성의 정체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들이 동원되었다. 이때 다양한 용어들이 호명된다는 것은 결국 주체와 대상, 목적에 따라 합당한 여성 정체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인식들의 경합이 표면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모순에 찬 여성의 정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 정체성에 대한 합의된 개념 즉 여성들에게 공통 관심사와 목표를 제공하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개념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이의 담론들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신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신여성’의 함의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부녀’와 ‘여자청년’이 아니라 ‘신여성’이 채택된 과정에 대해 물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의 정체 구성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신여성’의 등장 가능성을 한 갈등의 제국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성의 정체 구성과 관련된 딜레마는 앞으로도 해소되지 않고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 정체 구성과 매체의 상관성에 관한 본격화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매체를 통해 여성의 정체 구성을 둘러싼 장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벌어지는 갈등과 착종의 국면들을 들여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 밝히고자 하는 여성의 정체 구성과 매체의 상관성의 문제는 매체 별 여성의 정체 구성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해명되지 않는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오히려 시대와 매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체 구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갈등 국면을 표면화하는 것에 있다. 갈등의 제국면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판단되는 『여자계』에 주목하고자 하는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여성’ 담론에 관한 그간의 축적된 연구에 기반해서, 1910년대 후반에서 20년대 초에 발간된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젠더 정체성의 구성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여성의 정체 구성과 내셔널리즘, 매체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는 바, 근대여성 담론의 등장이 의미하는바 즉 담론의 기원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2. 『여자계』와 여성의 정체 구성

2.1. ‘용어의 각축장’의 의미

근대 주체 형성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근대 초기의 학회 월보 등의 인쇄 매체나 『소년』, 『청춘』, 『학지광』 지 등에서 근대 주체 형성을 둘러싼 호명의 주체나 목적은 비교적 선명하게 파악된다. 그러나 여성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서 ‘여성’을 호명하는 주체와 목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근대적이든 전근대적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성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보여주는 논의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는데, 이는 여성을 호명하는 용어의 스펙트럼을 통해서도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여자계』나 『여지사론』 등에서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여성’, ‘여자’, ‘신녀자(新女子)’, ‘청년여자(靑年女子)’, ‘신여성’, ‘구여자’, ‘처녀’, ‘어머니’ ‘부인’ ‘부녀(婦女)’ 등이 등장한다.

우리는 女子를 女子답게 가라쳐야된다는 그根本的思想부터 打破하고 女子의게도 自由를解放하고 平等한待遇를하여야 될줄입니다.⁵⁾

「삶」이라함은 움직임을 넘음이오, 자라남을 넘음이외다. 그럼으로 生命이 있는거슨 자다가도 반다시 쉼 靜止하였다가도 반다시 活動하고 休息하였다가도 반다시 자라며 나아가는 거시외다. (….) 朝鮮天地의 女子들은 生命이 잇습닛가.⁶⁾

어머니를 教育하는 거슨 全民族을 教育함이라호겠소 왜 女子教育의 必要를 尠닷지못호게 幼稚한가요, 우리민족은.⁷⁾

주부가 시간을 잘직히여서 모든일을 잘 처리호면 가장의 의스를 절반 도읍는 것이 될것시오며 또 집안에서 학교에가는 학생이 잇쓰면 어머니가 시간을 잘 직히여 晝선히 주면 그 아히에 공부 시간에 디호여서도 방히가 안이될 것이올시다 또는 그아히에게 시간 직히는 법을 攄연히 浬화주게 됩니다.⁸⁾

여러분이 이제精神을 차려서 스사로살피고 스사로 곳치고, 힘써 그리 한思想과風紀를곳치도록하면 腐放호社會는 一新할거시오 그리하여 能히 新社會를 지을수잇고 짜라서 우리압혜 榮光스러운 將來가 도라올거시외다. 新女子界-새조선을 지으시라는 靑年女子들의게 懇切한마음으로 변

5) 김환, 『復活하는女子界의게』, 『여자계』 4호, 1920. 3, p.4.

6) 추호, 『覺醒하라 新春이로다!』, 『여자계』 2호, 1918. 3, p.3.

7) 金德成, 『시로어머니가되신님피』, 『여자계』 2호, 1918. 3, p.20.

8) 松靑, 『시간과노력의경제』, 『여자계』 4호, 1920. 3, p.55.

변치못한말뼌 마대를 디리는바리의다.9)

제군아 제군아 우리조선녀학성제군아 우리반도녀자계야!10)

새문명에나아가는 우리신녀자야! 이모든녀자의 비애를 듣고엿지동심치 안을수잇습닛가 아-이러한동포로 밝은길로나아가게할이도 우리신녀자요 쏘이녀자로하야금 암흑에 찌러지게 하지못할책임도 우리신녀자들이로다. / 장래신녀자사회건설의 책임을지신이야! 이구녀자사회의의 비관할장래 운명을 개척하여나아갑시다. / 나는 일반사회에대하야 녀자구속주의를 타 파함을 데창함과 동시에 신녀자제씨에게 구녀자사회구제를 희망합니다.11)

이것이果然 現今朝鮮의큰社會問題다. 離婚問題-버림을當한婦人의慘狀-이것을엇더케解決하라나뇨? 諸者諸位여! 覺醒한女子여 엿지하려나뇨?12)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여성을 호명하는 다양한 용어들은 단지 용어 사용법상의 불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호명의 주체와 목적에 따라 조선여성 일반이 계몽의 대상으로 지칭되기도 하고, ‘주부’·‘부인’·‘어머니’라는 이름의 사회적 지위를 할당받은 여성으로 한정되기도 하며, 근대 교육을 통해 “하등동물적생활”¹³⁾에서 벗어난 여성 일반이 ‘신여성’·‘신녀자’로 지칭되기도 한다. 동시에 ‘여자계를 문명세계로 인도하고 ‘반도여자’를 각성에 이르게 할 계몽주체로서의 ‘여자청년’에 대한 호명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9) 無名隱士, 『女子의주느力』, 『여자계』 2호, 1918. 3, p.24.

10) 金 燁, 『신구충돌의비극』, 『여자계』 2호, 1918. 3, p.35.

11) 방순경, 『女子解放問題』, 『여자시론』 창간호, 1920. 1, p.17.

12) 秋湖, 『東京에서釜山까지』, 『여자계』 2호, 1918. 3, p.57.

13) 朴淳愛, 『大門을나선兄弟들의게』, 『여자계』 2호, 1918. 3, p.25.

앞선 시기의 매체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듯이, 근대 초기에 ‘여성’을 둘러싼 문제의 중심 화두는 ‘여자해방’과 ‘여자교육’이었고, 이는 개별 필자의 성별이나 출신,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여자계』 전체에도 관철된 공통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렇게 본다면 다양한 용어의 동원도 ‘여자해방’과 ‘여자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자계』에서는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일관되거나 통일된 논의가 구축되기보다는 오히려 각기 다른 용어들이 경합하고 있는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용어들을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경우와 근대/전근대 이분법에 의한 용법 혹은 논자의 성별과 사회적 지위 등에 의거해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용어 사용에 어떤 함의가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지광』에 실린 글인 『理想的婦人』(나혜석, 『학지광』 3호, 1914. 12.)이나 『女子界에도自由왔네-나의사랑하는半島新婦人에게』(강여사姜女史, 『학지광』 4호, 1915. 2)에서 ‘부인’이 호명되거나 김일엽이 주축이 되어 창간된 『신여자』에 『신여자』가 ‘부녀잡지’로 호명될 때(김일엽, 『婦女雜誌 新女子 創刊辭』(『신여자』 창간호, 1920. 3.)), 여기서 ‘부인’이나 ‘부녀’는 여성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여자계』에 대한 접근은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용어와 난맥상의 논의들이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바, 그 심층 구조에 대한 천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착종의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1920년대 전후로 근대 주체의 대표적 표상인 ‘청년’을 둘러싼 논의는 급증하면서 활기를 띠었던 반면 왜 ‘여자청년’에 대한 논의는 시작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가. 이는 ‘청년’ 담론의 젠더적 성격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보다 앞서 단일하지도 균질적이지도 않은 여성에 대한

논의들은 어떤 경합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의미 영역에 이르게 되는가. 심지어 한 편의 글에서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충하기까지 하는 논의들이 공존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2.2. 여성 내부의 차이 : 각성된 ‘나/우리’와 계몽의 대상인 ‘녀들’

우리도선은 아라비아에 모리와 잣고, 몽고들에 썩쓸과 갖흔 스회를 차 지하고 잇서 일본인민이 문명을 비에다 실어오고 룩디로 써올지라도 우리가 듯고보지못하면 그도흔 문명이 우리의게무삼상관잇쓰리오, 그런고로 일본 가나로써 쓴 잡지는 아모리 도쿄 우월흔 문학가 사람의 뇌수를 늘닐 지라도, 우리의게는뵈이지도 안코 들니지도 아니하니 눈먼즈의게 오식을 보라흔는데서 다를것이무엇이리오. (...) 심리가 부피하면 종교로 곳치나 오직우리도선녀 즈스회가 부피흔 거슨 뉘가구원 하며 무엇이악 이되리오 여기급선무는 학교교육과 잡지의 견식이 데일되는 명약인줄을 세상이 인 증흔바라.¹⁴⁾

조선녀학성제군이여, 삼스충양육과 자동차, 보석반지가 아모리조와도 자기를알아주고 스랑흔는 일기인이 즈기의게는 더헝복이되겟스며 황금의 식이 아모리풍부하며도 리상덕 Love를 엇으니만치 만족지못홀것이외다. (...) 이시디는 교만방자를부릴 썩가아니요, 현더우리조선은 양육을차즐시 키가아니외다 저불상흔동족을 구제히기도 제군이요 천신만고의 고통비관 을맛보아 자기몸을 밋기로쓰고 희싱이될 자도 제군이 아닌가? 제군이 제 군아 우리조선녀학성제군이 우리반도녀자계야.¹⁵⁾

조선의 문명이 개화하고 교육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과 전문교육을 받은 ‘여자청년’의 수가 많지 않음을 통탄하는 ‘추일나’의 『女子教育의思想』(『여자계』 2호)이나 여자교육 보급의

14) 『촉불이씨지려는녀즈계의고통』, 『여자계』 4호, 1920. 3, pp.48~49.

15) 金燁, 『신구충돌의비극』, 『여자계』 2호, 1918. 3, pp.35~36.

필요성을 강조하는 ‘H生’의 『女子界에게바람』(『여자계』 5호, 1920.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에 관한 논의는 ‘여성해방’과 ‘여자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자계』의 매체로서의 위상은 여기에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자계』는 ‘유교육자와 무교육자의 매개 역할’¹⁶⁾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자교육의 보급을 가능하게 할 유형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떠맡고 있었다.¹⁷⁾ 이에 따라 『여자계』에서는 ‘여성’ 독자층을 결집시키고 또한 호명해야 할 주체이자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함의를 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근대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보여주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논의는 여자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文明은 眼目으로 보면 野蠻이라고 눈살을 집프리고 同情은 마음으로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¹⁸⁾ ‘조선가정’에 대한 비판과¹⁹⁾, (드물기는 하지만) 인용문이 보여주는 바처럼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자신의 삶의 변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성들(‘거짓신사’)의 이중성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진

16) 安明淑, 『女子界를歡迎함』, 『여자계』 5호, 1920. 6.

17) 여자교육 보급처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은 <가정개조>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던 『여자시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여자시론』은 순한글에 가까운 표기에 한자어에 루비식 표기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여성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잡지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창간호에는 『여자시론』 지를 널리 읽게 할 것을 당부하는 알림글 형식의 글이 실려 있기도 하다. “녀자계를 본위로함은 무른이지만은 가당기조 다 시말하면 꼭 장쾌한혁명이 잇자함에 잇습니다. / 그리고 당신들만 넓지마셔요 당신들이 넓은뒤에는 반다시 이를 가당에 드러보너사 그가당에서 넓고 찌다름이잇스며 정말 뉘우침이 잇게흐시면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요 우리의 성공이외다.”(『선언합니다』, 『여자시론』 창간호, 1920. 1, p.26.)

18) 전영택, 『가정제도를 개혁하라』, 『여자계』 2호, 1918. 3, p.8.

19) 極熊, 『여자해방문제』, 『여자계』 4호, 1920. 3. : 탄파生, 『苛酷한禮節을打破하라』, 『여자시론』 창간호, 1920. 1. : 상아담, 『留學生의見地로부터보는朝鮮家庭』, 『여자시론』, 창간호. 1920. 1 등.

다.²⁰⁾ 여성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혼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거나 가정제도가 개조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구체화되며, 대체로 이견 없이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는 논의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여성이 처한 조건과 환경 못지않게 비판의 칼날이 겨누어지는 것은 “금일까지 노예의 길”을 걸어온 여성의 삶 자체이기도 한데, 그 삶은 “내로는 물질욕망의 노예와 금수적 요구가 되며, 외로는 사회적습관적 권위의 굴욕자가 되어 활기가 결핍하니 사방이 적막하고 암암”²¹⁾한 그야말로 ‘노예적 생활’과 ‘기생층 생활’로 정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單純한 兒孩나 玩弄具가 아니요 男子의 玩弄物이 아니요 男子와 對等의 人格者로 男子와 갖치 力을 合하여 社會을 開拓하고 人類의 幸福을 增進케 하란 것”²²⁾임을 스스로 깨닫는 ‘각성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다.²³⁾

그러나 여성의 (정신적) 각성이 요청된다는 논의에 동의한다고 해도, 『여자계』의 논자들이 각성된 여성상에 대한 입장에서 합의점을 제시해 주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자계』에는 여자교육의 지향점 즉 여성

20) “慣習으로 因하여 現今 外國文明을 밧고 新科學도 밧보았다는 者即 女子教育이 必要하며 有益한 것을 說明하고 女子教育을 勉勵하라고 逆說하는, 表面으로 보면 多聞多識하고 文明의 先導者 갖치 보이는 紳士들의 家庭을 보아도 맞당히 教育을 밧을 만한 青年女子가 허도 허집안에서 男子의 奴隸노릇을 하며 歲月을 보노니 이가 不如其數로다. (…)
아 슬프다 우리 青年女子 同胞들은 覺醒하여 女子教育에 獻身努力할지이다.” 李일나, 『女子教育의 思想』, 『여자계』 2호, pp.55~56. : 金燁, 『신구충돌의 비극』, 『여자계』 2호 등.

21) 玄德信, 『시세계가 다시 왔네』, 『여자계』 5호, 1920. 6.

22) 玉露, 『우리의 온길갈길』, 『여자계』 5, 1920. 6.

23) 각성을 촉구하는 논의는 『여자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秋湖, 『覺醒의 新春』, 『여자계』 2호 : 霽月, 『婦人의 覺醒이 男子보다 緊急한 所以』, 『여자계』 2호 : 金安植, 『自己를 知하라』, 『여자계』 4호 : 春江, 『新女子의 自覺』, 『여자계』 4호 : 劉英俊, 『半島 青年女子에게』, 『여자계』 5호 : 玉露, 『우리의 온길갈길』, 『여자계』 5호 : 崔元淳, 『兩性의 地位와 貞操의 道德의 價値』, 『여자계』 6호, 1921. 1. : 秋菊, 『女子의 自覺』, 『여자계』 6호 : 範, 『朝鮮 青年女子의 希望』, 『여자계』 6호 : MC生, 『女子의 自覺과 男子의 反省을 떠함』, 『여자계』, 6호 등.

의 각성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이 공존해 있었으며, 여기서 각 논자들의 서로 다른 남녀관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여성의 정체 구성과 관련해서 이 장면들을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계몽/각성의 대상과 교육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근대/여성’에 대한 각기 다른 상을 제시하면서 여성 정체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난국의 지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정체 구성 과정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은 ‘근대/여성’의 상을 구성하고자 하는 작업이 매체로서의 『여자계』의 독자층 상정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자계』에 의해 구성되는 여성론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차원 즉 보다 실제적인 글쓰기의 대상 차원의 문제였던 것이다.

여성의 각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자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 각성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여성 내부에 다층적인 차이의 국면이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1) 이제 제가 한말삼 들이려하는거슨, 형님들이 眞實노 可憐한 녀들을 건지실마음이잇고 果然 이러한 義務와責任을 다하실뜻이 잇거든 (조곰이라도, 녀들의게 有益을 주시라거든) 좀 어렵지마는, 不安하지마는 형님들이 「나」라는 거슨 니저버리서야합니다. 「나」보다 먼저 「녀들」을생각 하시고 「나」보다 더욱 「녀들」을 위하십쇼.²⁴⁾

(2) 自助는 信用이니 小事로부터 眞實히야 大事까지 誠實히 하면 萬人이 信用히며 世上이 歡迎히야 頭上에 月桂冠을 쓰고 堂堂히 宇宙間에 뽐을니 일지라.> 이러한 주장 끝에 허영심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다. <... 虛榮心에 醉히야 自己身分을 守치안코 別서 參政權을 圖謀히는 西洋女子를 學히야 家庭

24) 「卒業生諸兄의게들이는말씀」, 『여자계』 3호, 1918. 10, pp.4~5.

과村里와市町에對호는事는度外에置호고, 父母와男便을雇工으로看做호는
이도或有호다호니, 如此호는事가實노잇는기無호는줄信호는노라²⁵⁾

인용문은 여성 내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대표적 담론들이다. 졸업생에 대한 당부의 글인 『卒業生諸兄의게들이는말씀』(인용문 1)에서 여성은 각성의 ‘주체’로서의 여성과 계몽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나와 저들’로 구분된다. 『여자계』 전체를 통해 여성의 각성이 촉구되면서도 한편으로 각성의 주체를 ‘우리’의 이름으로 규정하려는 논의와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저들’을 계몽할 근대적 지식에 대한 소개가 병렬적으로 공존하게 되는 것은 이 여성 내의 구분과 무관하지 않다. 다른 한편, ‘청년여자’의 자조의 방안을 완전한 성(誠)과 진실한 애(愛)로 노력하는 것, 자기의 신분을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글 『青年女子의自助』(인용문 2)에서 이상적 여성상은 ‘사치하고 허영한’ 집단과 대비되는 자리에서 규정된다. ‘사치와 허영한’ 집단은 ‘부패한 사회를 일신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취할’ “신여자계-새조선을 지으시라는 청년여자들”²⁶⁾, ‘금욕적이고 계몽적이며 직분 논리에 충실한 청년여자’²⁷⁾를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자조’하는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 배제해야 할 대상을 지칭하며, 여기서 이상적 여성상은 ‘사치하고 허영한’ 여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규정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논의들이 근대 주체로서의 청년 담론이 구성되는 메커니즘을 차용하면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각성된 여성을 사회와 민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자신’을 잇고 사회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직분론과 연관되며, ‘사치심과 허영심’에

25) 苻峰 『青年女子의自助』, 『여자계』 4호, 1920. 3, p.27.

26) 無名隱士, 『女子의주는力』, 『여자계』 2호, 1918. 3, p.24.

27) 範, 『朝鮮青年女子의希望』, 『여자계』 6호, 1921. 1, p.27.

관한 후자의 논의는 1910년대 이후 근대 주체가 구성되는 메커니즘과 연관된 청년-부랑청년 담론의 반복이다. ‘사치심과 허영심’은 근대 주체가 구성되는 장면에서 부정되어야 할 대타항의 특질을 지칭했던 대표적 수사로, 근대 주체로서의 청년 담론은 이 수사를 활용하면서 엘리트 청년을 문명의 주자이자 민족의 중추로서의 자리에 위치시키고자 했다.²⁸⁾

각성과 개조의 ‘주체’로서의 여성과 계몽과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동시적 호명하고자 하는 이 과정에서 여성의 정체는 내부의 차이와 균열이 확산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신여자계와 ‘새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주체로서의 ‘청년여자’의 직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때 이 논의는 허구적인 면모를 드러내게 되는데, ‘청년여자’의 직분에 대한 논의는 네이션nation과 성별 차이의 범주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작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각성한 여자의 직분에 대한 논의인 『新女子의自覺』에서 “내自身을爲하여 安樂을 그만두고 내몸을社會에바쳐서 일하고저”²⁹⁾하는 ‘독신주의자’들은 ‘신여자계 악마 혹은 싹테리아菌’으로 냉혹하게 비판된다. 얼핏 이 논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고자 하는 각성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비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비판은 ‘직분’과 ‘사회’의 범주가 성별 차이의 관점과 만날 때 가능한 것이 된다. 성별 차이에 입각할 때 여성의 직분은 ‘여성으로서의’ 직분과 ‘여성의’ 사회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서면 ‘독신주의’는 ‘여성의 직분’을 저버리는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청년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정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청년여자’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함께 곧바로 ‘청년’과 ‘여자’에 대한 논의로 분리되고 결국 ‘여자’에 대한 논의로 환원되는 과정과 맞물려 버린다.

28) 소영현, 『미적 청년의 탄생』, 연세대 박사논문, 2005, pp.100~117 참조.

29)春江, 『新女子의自覺』, 『여자계』 4호, 1920. 3, p.31.

여성을 각성의 주체로 호명하던 계몽의 대상으로 호명하던 사회적 직분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면 여성에 대한 논의는 성별 차이에 입각한 여성론으로 획일화되며, 따라서 각성의 ‘주체’로서의 여성과 계몽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논의는 분화되기도 통합되기도 못한 채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2.3. 여성 외부의 차이 : 평등론과 동등론

여성 내부의 차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성의 정체 구성과 관련한 각 논자들의 입장 차이가 대립하는 근거에는 ‘여자해방’의 의미에 대한 입장 차이 즉 남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장 차이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인격과 개성 회복이 주장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남녀의 동등성이 강조되고 여성의 직분론과 현모양처론이 주장된다.

『여자계』 3호에 실린 『女子教育論』에서 논자가 주장하는 여자교육의 이상은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필자는 현모양처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예와 어학 교육이 결국 교사와 전도사의 양성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덕성교육과 인격양성’을 지향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⁰⁾ “안희와 어머니보다 먼저 일개의 인간이되지안이하면 안”³¹⁾된다는 주장으로 요약되는 이러한 입장에는 남녀에게 교육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입장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서도 차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여성을 가정 내의 존재로만 한정하는 논의 즉 현모양처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방침은 철저한 비판의 대

30) 『女子教育論』, 『여자계』 3호, 1918. 9, pp.10~11.

31) 春城, 『婦人問題』, 『여자계』 5호, 1920. 6.

상이 된다.

반면, “男子는 男子우실호고 女子는 女子우실호야 異성이 各各호는 일과 責任은 다름지언던 尊卑의 區別이 잇는 것은 안니”³²⁾라는 입장에서면, 이 논의에서는 남녀의 ‘동등성’ 획득을 위한 전제로서 남녀의 차이가 상정된다. 남녀의 동등성 회복을 중시하는 이러한 입장이 남녀의 차이에 근거해서 남녀의 상보적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로³³⁾, 사회에서의 여성의 직분을 강조하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여성은 대체로 아내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호명되는데, 육아 문제와 가정 개조에 관한 논의가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논의 맥락 속에서이다.³⁴⁾³⁵⁾

일면적으로 보자면 평등론과 동등론에 입각한 이 논의들은 여성해방과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전혀 상반된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자의 논의는 동등한 교육을 받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혹은 남녀가 불평등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성별 차이에 기댈 뿐만 아니라 그 차이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페미니즘이 직면하게 되는 역설의 양면이다. 페미니즘의 역사를 역설의 역사로 재사유한 조앤 스콧(Joan W. Scott)의 작업이 시사하는 바, 이 역설은 남녀평등을

32) 靜波, 『女子界社의 姉妹諸位의게』, 『여자계』 5호, 1920. 6.

33) 徐椿, 『男女相互補短에就하야』, 『여자계』 6호, 1921. 1, p.13.

34) 갈물, 『泰西婦人小傳』, 『여자계』 2호 : 洪基瑗, 『家庭과學校』, 『여자계』 2호 : 韓興教, 『育兒의二大注意』, 『여자계』 2호 : 『천재를만드는조교육』, 『여자계』 3호 : 『小兒를어지대접할가』, 『여자계』 3호 : 『兒童의口中衛生』, 『여자계』 3호 : 春光, 『婦人金句』, 『여자계』 5호 : 玄德信, 『婦人金句』, 『여자계』, 6호 등.

35) 사실 1910년대 여성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가정 개조와 육아에 관한 계몽담론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계』(1913. 4. - 1917. 1.)에서도 1914년 『婦人雜誌 우리의가영』이 창간되기 전까지 <가영학강화>란을 통해 가정 위생을 포함한 육아 관련 지식들이 소개되었으며, 『그리스도회보』(1911. 1. 31. - 1915. 2. 28.) 등의 기독교 계통 잡지에서도 <가정학>, <가영과 소년>, <가영과 소년>란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법에서 육아교육의 주체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강조까지 가정 개조 전반에 관한 지식들이 소개되었다.

주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육체적 차이에서 비롯된 불평등한 대우를 문제 삼아야 하며, 남성과 ‘똑같은’ 개인이 되기 위해 ‘차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피할 수 없는 역설이다.³⁶⁾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불러오는 페미니즘의 이 역설은 우리의 근대 여성 정체 구성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의 논의에 대한 소개가 『여자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서³⁷⁾ 알 수 있듯이 남녀의 차이를 둘러싼 문제는 우리에게도 여자해방과 관련해서 피할 수 없는 난제였다. 때문에 남녀관의 차이에 입각한 논의들은 서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한 편의 글에서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여자계』 6호에 실린 최원순의 글 「兩性の地位와貞操의道德的價値」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자유와 이에 입각한 개성과 인격의 실현이다. 그런데 각기 능력이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인격적 가치’와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생활이며, 그것이 가치 있는 생활임을 강조하는 필자의 입장은 남녀 문제로 이동하면 성별 차이에 따른 제한적 의미로 한정된다. 즉 “서로 그 個性과人格을尊重함으로 男女는서로自由며平等이 다 各各사람이라는 立脚地에서 그 技能과本性을따라 人生의目的에奉使하며 感恩澤에浴함이”(5쪽.) 바람직하다고 할 때, 여기서 개인의 기능과 본성은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 내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 개성과 인격의 실현은 감정과 본능에 입각한 생활이 아니라 이성적 질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덧붙으면 논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남녀 공히 감정과 본능을 통어하는 이성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남녀의 서로 다른 기능과 본성의 실질적

36) Joan W. Scott(공임순·이화진·최영석 옮김),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엘피, 2006. 참조.

37) 春城, 『婦人問題』, 『여자계』 5호, 1920. 6.

함의는 추상적인 표어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朝鮮青年女子의希望』에서 문명으로 나아갈 혁신의 희망으로서 ‘금욕적이고 계몽적이며 직분 논리에 충실한 청년여자’가 요청된다는 필자의 주장이, 교육을 통해 계몽의 주체가 된 여성은 부모에 순종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사회에 유익한 인물이 되고 검약하는 여자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³⁸⁾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를 금지하는 것은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습에 불과하며 사회의 제반 도덕 기준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는 ‘인생의 욕구와 자연의 욕구’를 인습에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과감한 주장이 성 개념과는 전혀 무관한 남녀간의 동성과 같은 교제를 바람직한 교제로 제시하게 되는 경우도³⁹⁾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착종된 논의들은 엘렌 케이(Ellen Key)⁴⁰⁾ 등의 서구 이론이 당대 현실의 문제를 해명하는 자리에서 변용된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이들 인쇄 매체를 주관했던 여자일본유학생들이 일본에서 받았던 교육내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일본유학생들은 직업교육과 ‘양치현모주’ 여성 교육 그리고 서구형 교양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일본의 여자고등교육의 영향으로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⁴¹⁾ 인격자로서 여성의 개성 실현에 관한 논의와 가정(사회) 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가 명료하게 분화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는 무엇보다 여성의식의 불철저함에서 기인한 것이

38) 範, 『朝鮮青年女子의希望』, 『여자계』 6호, 1921. 1, pp.27~30.

39) 星, 『男女交際에對하여』, 『여자계』 6호, 1921. 1, pp.17~22.

40) 예컨대, 연애지상주의를 주장했던 엘렌 케이는 연애 없는 결혼은 무의미하고 비도덕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소임을 여성의 직무의 최상의 자리에 위치시켰다. 노자영(盧子泳), 『女子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 (엘렌 케이)』, 『개벽』 8호, 1921. 2. 『개벽』 9호, 1921. 3.

41) 박정애, 앞의 글, pp.26~30.

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정체 구성에 관한 논의가 착종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시대적 한계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이 착종의 국면이 『여자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주도했던 매체인 『신여자』의 경우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고찰할 문제는 이 착종된 논의들이 궁극적으로 남녀의 섹스/젠더(sex/gender)의 차이를 강화하는 논리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靑年女을 말씀하시리이다, 非實際的 空 架空의 靑年이외다 自稱 藝術家니, 文士니하시어現代를 理解하시안코 消極的으로 社會를 攻擊하며 組織을 非難하시는 이들이외다, 何等の 修養이 업시 다만 直感的으로 本文學書類와 美術이나 音樂으로써 머리부터 다른 사람을 蔑視하시는 靑年이 있습니다, 그들의 짓는 글은 거진 戀愛에關한 것이외다, 그리하시야 文字고되로 하려하나 持久性에 니르서는 壯氣가 쓴 文字를 放棄합니다./ 우리 單純하고 세상 모르는 處女에게 로만틱愛를 너혀줌보다 險한 세상 길을 좀 平穩하게 가도록 하여주세요.⁴²⁾

이세상에서 Man다운 Man으로 사라가자면 그것케 하야가지고는 아무 餘望이 업슬것이올시다. (...) 男子中에서는 明確한定見도옵시 함부루 女子는 奢侈를한다 教育받은 女子는 虛榮心이만타 教育받은 女子는 傲慢하다하야 攻擊과 誹謗이 물퍼붓듯하옵니다.⁴³⁾

인습에서 벗어나려는 조선의 사상계를 프랑스 혁명기 특히 공포정치 시대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女子가본現代男子」의 필자가 비판하는 것은 혼인문제를 둘러싼 현대 남자들의 방종한 태도이다. 필자에 따

42) 계희, 「女子가본現代男子」, 『신여자』 3호, 1920. 5, p.13.

43) 김애은, 「청년남녀에게」, 『신여자』 3호, 1920. 5, p.49.

르면, 신문물을 받아들인 현대남자들이 연애를 일종의 오락물로 여기고 여자를 완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랑과 방종한 연애를 혼동한 까닭이며, 궁극적으로 여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자면 필자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비판의 대상은 ‘일반현대남자’라기보다는 오히려 “男性에 消極的男性”(13쪽)으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필자는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부랑청년’이나 ‘거짓신사’가 아니라 남녀 이분법에 부적합한 존재- ‘靑年女’-를 비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교육받은 근대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반박하면서 ‘시기(猜忌)청년’을 비판하는 『청년남녀에게』의 필자가 “Man다운 Man”에 대한 열망을 드러낼 때, 이들 논의는 궁극적으로 젠더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별을 옹호하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해방과 여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녀의 불평등을 문제 삼기 위한 논의는 이렇게 해서 남녀의 이분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⁴⁴⁾

따라서 근대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남녀의 차이라는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이분법 논리 속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여성교육 보급의 장이었던 인쇄 매체는 남녀 이분법 논리를 승인하고 유포하는 장이 되었다고 해야 한다. 말하자면 근대 여성의 정체 구성 작업이 내장한 딜레마는 남녀 차이라는 이분법 혹은 내셔널리즘 속에서 해소되어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을 둘러싸고 상충된 논의들이 배치되어 있는 『여자계』는 서로 매끄럽게 맞물리지 않는 두 작업 즉 ‘근대’ 여성을 규정하는 작업과 근대 ‘여성’을 규정하는 작업이 겹치면서 생겨나는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규정 불가능한 ‘여성’에 대한 논의가 이끈 효과라고 할 수 있는

44) Jonathan Culler(이은경·임옥희 옮김), 『문학이론』, 동문선, 1999, 1장 참조.

데, ‘근대/여성’을 둘러싼 논의는 ‘여성’에 관한 선(先)규정을 요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작업은 남녀 이분법의 논리를 근대 여성 담론의 근거에 자리하게 한다.

3. 내셔널리즘과 젠더화, 우정론 - 결론을 대신해서

『여자계』는 여성의 정체 구성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여성의 정체 구성 과정은 결국 남녀의 관계에 대한 모순적 논의들 즉 평등론과 동등론 그리고 이것이 불러올 역설적 상황을 노출시키게 되며, 『여자계』의 여성에 관한 착종된 논의들은 이 역설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정체 구성 과정에서 이 역설 자체가 문제시되지는 않았는데, 여성 내부의 차이의 지점들이 남녀의 차이를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해소되는 한편, 여성의 해방과 각성의 목적이 1920년대 전후로 조선사회에 불어 닥친 개조의 열풍과 결합되면서 이 문제가 은폐되었기 때문이다. 남성과 동등해지지 않는 한 남녀평등을 논의할 수 없으며 반대로 남성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여성성을 부정해야 하는 이 역설은 ‘신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개조 열풍 속에서 은폐되고 봉합되었던 것이다.

若女子가自立 ㅎ야男子에累가되지아니 ㅎ을뿐外리家庭에對 ㅎ야分利는少
 ㅎ고生利는多 ㅎ면國民의實力이日進月盛城 ㅎ야元氣가充益 ㅎ리니엇지富
 强치못함을患 ㅎ리오⁴⁵⁾

完全한家庭이 잇서야 完全한社會를 支配하고, 完全한社會가 잇서야

45) 兪珏鄉, 『少女의責任論』, 『신여자』 3호, 1920. 5, p.7.

完全한國家가 있을것은 제가말하지안어도 아조明確한 理致이외다. 그리 하려면 먼저 覺醒하신여러분이 그眞僞에 드러가지아니하면 아니되겠습니까.⁴⁶⁾

그러면 무엇부터 改造 해야겠습닛가.

무엇-할 것 업시 통트리 社會를 改造 해야겠습니다 社會를 改造 하려면 먼저 社會의 原素인 家庭을 改造 해야야 하고 家庭을 改造 하려면 家庭의 主人될 女子를 解放 해야야 할 것은 物論입니다. (...) 우리는 同等이란 헛 文書만 차즈려 흠도 아니고 女尊이란 헛 글자만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社會를 爲 해야 일하기 爲 해야 解放을 엇기 爲 해야 남보다 나흔 社會를 만들기 爲 해야 일하느디 조금이라도 貢獻하는 비잇슬가 해야 나온 것이 우리 新女子입니다.⁴⁷⁾

민족이라는 대타자의 개입으로, 『신여자』 창간호에서 김일엽이 주장하고 있듯이, 해방된 여성은 가정의 주인이 되어 가정을 개조함으로써 사회 개조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며 민족(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여성의 자기수양과 교육도 후일 ‘국민의 모(母)’가 될 것을 예정할 때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근대여성에 대한 논의는 재생산 노동이라는 기능을 떠맡는 방식으로 민족의 젠더화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맺음 방식 또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남녀 관계맺음 방식에 관한 논의는 ‘연애와 결혼’⁴⁸⁾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바, 정념의 해방에 기초한 자유연애론 못

46) 春江, 『新女子의自覺』, 『여자계』 4호, 1920. 3, p.33.

47) 김일엽, 『婦女雜誌 新女子 創刊辭』, 『신여자』 창간호, 1920. 3.(김일엽, 『未來世가 다하고 남도록』, 일엽 선사 간행위원회 편, 2권, 인문연구소, 1974, p.163. :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푸른사상사, 2006, p.473.)

48) George Mosse(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pp.23~40 참조.

지않게 강조되었던 것이 ‘우정론’이다. 이 시기의 자유연애론은 실상 ‘우정’이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더라도 정념에서 벗어난 인격적인 만남을 바람직한 연애관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인생의 요구와 자연의 욕구’를 인습에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남녀교제 금지의 도덕을 개량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사람다운交際’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男女交際에對하여』(『여자계』 6호)에서 ‘사람다운交際’로 거론되는 것은 자유연애⁴⁹⁾가 아니라 ‘우정(friendship)’에 기반한 교제다. 그 교제방식은 “同性間과갓흔友情으로一貫하여 性的觀念의存在가 조금도없고 다만 社會의必要와幸福의增進을目的하는交際이니 그實質이同性交際와조금도差異가업”다. 그러므로 이 논의에 따르면, 남녀교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女子도人格者라하면 社會의 一分子다하면”⁵⁰⁾ 반드시 이런 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논의에 따라 우정에 입각한 교제를 하면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같은 신체와 같은 이지, 같은 사상과 같은 감정의 소유자’(21쪽)이자 성욕에 기반한 욕애(慾愛)에서 벗어난 ‘인격적 존재’⁵¹⁾가 될 수 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남녀의 교제를 ‘우정’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사적인 영역에 속한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되었던 섹슈얼리티는 공적 통제의 영역으로 넘겨지게 된다는 점이다. 자유연애의 지향점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고 그것이 ‘이상적 가정’으로 규정될 때 즉 “理想的家

49) 上野千鶴子(이승희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p.66. 우에노 치즈코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테리 이 글턴(Terry Eagleton)의 논의를 원용하면서 지적한 바 있듯이, ‘연애-결혼’이라는 전근대적 대가족에서 근대적 핵가족으로 이행해가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가부장제의 근대적 형태를 여성 스스로 기꺼이 선택하도록 한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작용했다.

50) 星, 『男女交際에對하여』, 『여자계』 6호, 1921. 1, p.22.

51) 玉露, 『結婚과戀愛』, 『여자계』 6호, 1921. 1, p.35.

庭”이 “人格의파라다이스”이자 “愛의인큐베이터 Incubator”로 규정될 때⁵²⁾, 민족(국가)의 대리자인 가정은 정념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정념 통제 방식을 내면화하고 남녀간의 사랑을 우정으로 변화시킬 때, 가정의 주체자인 여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남성들의 세계 혹은 민족(국가)에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의 정체 구성은 여전히 문제적인 지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여성 정체 구성 과정이 직면했던 딜레마가 민족의 젠더화 과정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셔널리즘을 구성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기본자료

『녀자지남』, 『신문계』, 『그리스도회보』, 『학지광』, 『여자계』, 『여자시론』, 『신여자』, 『개벽』

2. 단행본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푸른사상사, 2006.

문옥표, 『신여성』, 청년사, 2003.

이상경,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52) 연애와 결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다음의 글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玉露, 『結婚과戀愛』, 『여자계』 6호, 1921. 1, p.31. “理想의家庭! 愛와滿足의結晶인家庭! 熱烈한사람으로 生命을삼고 自由와平等으로 血液을 삼아 모든家族으로하여곰 相互扶助의團欒을 즐기게하며 各自의個性을 發揮케하는 理想의家庭!. 不平苦痛이없고 權力服從의그림자가업난 人格의파라다이스이요 것뵤과만족 차고넘치난 愛의인큐베이터 Incubator인 理想의家庭! 今日의青年치고 누구나 이를 말하지만 는이업스며 꿈보지 안는이 업는듯하외다.”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 上野千鶴子(이승희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 George L. Mosse(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 Joan W. Scott(공임순·이화진·최영석 옮김),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앨피, 2006.
- Jonathan Culler(이은경·임옥희 옮김), 『문학이론』, 동문선, 1999.

3. 논문

- 권희영, 『1920~19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사회와 역사』 54집, 한국사회사학회, 1998.
-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박사), 2005.
-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1999.
-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표현의 역사와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제9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 전은정, 『근대 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여성과 사회』 11호, 한국여성연구회, 2000.
- 홍양희, 『일제시기 조선의 ‘현모양처’ 여성관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 1997.

Abstract

Politics of Gender Identity and the Origin of
 ‘Modern/Women’ Discourse

- On the focus of 『YeoJaGee(女子界)』

So, Young-Hyun

There were many terms for the formation of women identity in modern magazine 『YeoJaGee(女子界)』(1917). Because quite a number of writers in 『YeoJaGee(女子界)』 had different position and recognition none the less many writers **consisted in the need of ‘emancipation for women’ and ‘education for women’**. As it were, writers had the different position of ideological caller and the different recognition of men-women identity. Then 『YeoJaGee(女子界)』 has shown the scene of the formation of women identification because it was a contradictory topics. Women identification had discovered that the argument of the relation between men and women has a paradox. There are two works about the identification of ‘modern’ women and the one of modern ‘women’ in 『YeoJaGee(女子界)』. Those situation were caused by the effect of dilemma of feminism. As the result, it is only possible for modern women identification to form in the dualism.

key words : gender, identity, formation, modern/women, discourse, emancipation, education, difference, equality, friendship, nationalism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